

부처님 열반지 주변 건축물 철거 방침에 스님들 반발

주정부, 관련법 근거로 사찰·진료소 철거 통보 스님들, 법원에 재심 요청...세계 각국에 호소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गर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불법이라며 이를 철거기로 한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현지 스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철거 결정이 내려진 건축물들은 사찰, 진료소, 휴게시설 등으로,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이루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이후에 자리잡은 것"이라면서 "인도 내의 고고학 유적지를 다루는 고고(考古) 관련 법률에도 보호 대상 기념물 주변 100m 안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결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철거를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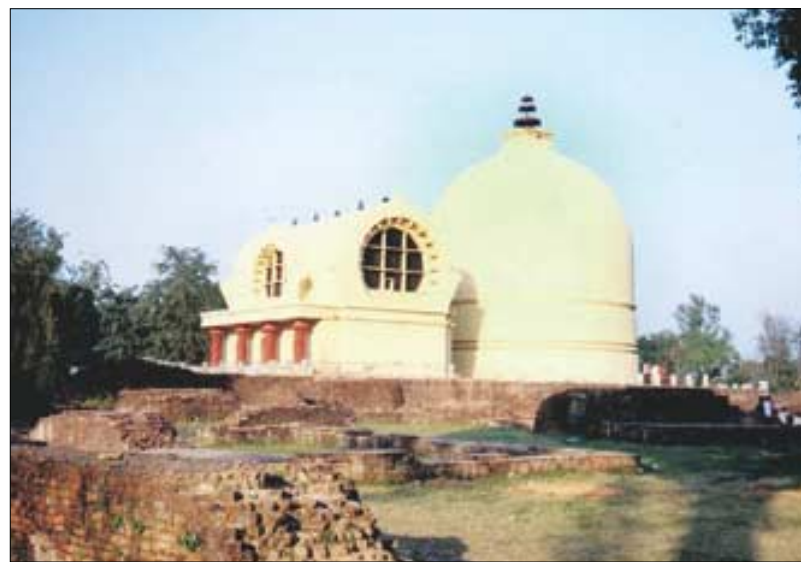
그러나 현지 스님들은 부처님 열반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들을 법적인 잣대만으로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거결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정부는 2005년 12월 25일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자 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철거결정 재심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집행을 일시 보류시켰다.

현재 이 문제는 주정부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는 당연한 일인데도 스님들이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행중인 기아네스와르



쿠시나गर에 위치한 열반당(Nirvana Temple)의 전경. 주정부는 5세기경 조성된 열반당이 인치되어 있는 이 건물 인근에 들어선 사찰과 진료소 등을 철거키로 해, 스님들이 반발하고 있다.

(Gyaneshwar) 스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건물들을 부술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 주재 몇몇 대사관과 세계 각국의 불교 단체들에 호소문을 보냈으며, 이번 사태를 세계 곳곳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시나गर은 룸비니(Lumbini), 보드가야(Bodhgaya), 사르나트(Sarnath)와 더불어 불교의 4대성지로 알려져 있다.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참선·명상과 건강의 관계

최근 KBS 제1TV의 '마음'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에서 '마음과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난치병의 치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의료 과학과 뇌 촬영 기법의 발달 덕분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참선(명상) 수행을 하는 스님들을 신비하게만 바라보던 서구의 과학자들도 아시아 출신 스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MIT 대학에 설립된 '뇌(腦)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의 심장 전문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들이 티베트 스님들과 함께 '명상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는 샤론 플레이셔(Sharon Fleisher)는 '명상을 읽지 않고 문예 학생을 잘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고 싶었다. '명상 센터에 가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명상에 입문한 그녀가,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명상 센터의 학생이 아니라 운영 이사가 되었다. 그녀는 '명상이 교실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참용성이 많아지고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제 자신을 훨씬 더 잘 맞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 그 중에서도 40세가 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명상 수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세계 정상을 달리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참선 수련 덕분에 좋은 성적을 올린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세계 最古한문경전 중서 발견

"한문으로 기록된 불경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전이 라오닝(遼寧)성 파리엔(大連)에서 발견되었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1월 19일 보도했다.

이 신본은 중국의 뤼순(旅順)박물관과 일본의 류코쿠(龍谷)대학 공동주최로 2005년 10월에 열린 '뤼순 박물관 소장 신지양(新羅) 출토 한문 불경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각국 전문가 40여명이 이 불경을 '세계 최고의 한문 경전'으로 인정했

으며, 이번 발견의 종교적·학술적 의미까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경전은 서기 296년에 편찬된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의 일부로, 뤼순 박물관에서 14개의 잔편(殘片)을 보존 처리하여 책으로 만들어냈다.

<제불요집경>은 '모든 법이 공(空)'임을 설한 경전으로 촉법호(竺法護) 스님이 266~313년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296년 편찬 사본이 발견되어 번역 연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은희 기자

"서구인들 부처님 역사 왜곡"

인도 역사학자, 기원전 1887~1807년 생존 주장

"서구의 역사학자들이 알렉산더대왕의 인도 정벌 가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처님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인도 역사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의 일간지 뉴인드프레스(Newindia press)는 1월 12일 인도 역사학자 코타 니티아난다 사스트리 박사의 주장을 이와 같이 보도하면서 사스트리 박사가 자신의 부친인 역사학자 코타 벤카타레탐이 쓴 <부처, 밀린다 왕 그리고 암티요카의 시대(Age of Buddha, Milinda & Amtiyoka)>라는 논문을 인용해 부처님이 기원전 1887~1807년 살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처님은 마가다 왕국의 제 31대, 32대와 33대 왕이었던 크세마지트(Kshemajit), 밤비사라(Bimbisara) 및 아자타사투(Ajatasatu)와 동시대인이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 증거뿐만 아니라 푸라나(인도의 성서) 기록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고 밝혔다. 세계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 주장이 확인될 경우 불교 역사가 새로 정립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희 기자

말레이시아서 여성불자대회

오는 6월17~21일 사우 생 룬 전시관서

2006년 사카디타 여성불자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사카디타 대회장 쏘모(사진) 스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1월 14일 마하비하라 사원과 말레이시아 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만찬에서 제 9차 사카디타 대회를 6월 17~21일 말레이시아의 사우 생 룬(Sau Seng Lum: Puchong) 전시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쏘모 스님은 "사카디타가 다중문화국가에서 개최되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올해 대회를 계기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평화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카디타는 1987년 인도 북타가야에서 결성된 세계최대의 불교여성단체로, 격년마다 사카디타 대회를 개최해 각국의 여성불자 및 출가자들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해왔다. 이은희 기자

'인도주의 불교와 경제' 주제 美 웨스트대학서 불교학회

제 7차 국제인도주의불교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stic Buddhism)가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웨스트트 대학에서 개최됐다. 웨스트 대학은 1991년 미국 최대의 사찰인 서래사를 세운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인도주의적 불교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이번 학회를 주

도한 대만 불광산사 미국지부 서래사 주지 휘츠(Hui Chi)스님은 "경제학 연구와 불교수행은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처럼 불교수행도 마찬가지로"며 이번 학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성운 스님(대만 불광산 총회장)의 실천적 불교비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학회 참가자들은 인도주의적 불교가 정신계에 역점을 두는 데서 출발한다는 스님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은희 기자

마음수행의 질병 치료효과 속속 드러나 정신의학 차원 뛰어넘어 과학계 화두로

구동성으로 "놀라게도, 그동안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실토한다.

한편 미국의 지역언론인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1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던 미국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명상수행이 유행처럼 번져나간다. 마니에폴리스의 법률회사에 소속된 변호사 로버트 제그로비치(Robert Zeglovitch)는 10년 이상 명상 수행을 해왔다. 요즘은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 쟁김(正心)"수행을 지도하며 불교를 강의하는데, 수요가 넘쳐난다.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일반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명상 수행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일간지 '뉴스데이(Newday)'는 1월7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뉴욕의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

고 있다. KBS TV의 특집 '마음'에 소개되었듯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뽐내던 선수 이원희도 마음 훈련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선은 좋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자랑만 하지 말고 과학계와 진지한 대화를 계속하고, 그들이 공동 연구나 사업 동참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 불교계가 내세우고 있는 '선(禪)의 생활화 세계화'라는 불교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강한 세상'을 이룩하여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또한 널리 증생(衆生)을 이롭게 하는 요익증생(饒益衆生)의 길이다.

이병두씨는 한국국어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덕성여대 오산대 명지대 강사(사)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서적 번역과 불교계 저우기자로 활동 중이다. <영어로 읽는 법구경>, <담마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등의 번역서가 있다.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흥종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소시는 길

버 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권천방향) → 점촌·합천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부석사 30분소요, 청량사 40분소요, 봉정사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